

-의견 및 제안-

- 본교 정부출연금 예산이 다른 과기원에 비해 규모 대비 현저하게 적은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구성원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분석은 기획팀 등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그 결과를 전체 교수와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합심하여 고민한다면 훨씬 좋은 방법들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UNIST 문제점 중 교원 평균 연구비(3.85 억)가 타 과기원에 비해 적은 것도 지목이 되었는데, 이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교수가 많은 본교의 특성이라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전체 연구비 보다는 직급별 평균 연구비를 타 과기원과 비교한 결과를 함께 공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연구비에 대한 문제가 도출된 바, 향후 개별 교원에게 연구비 수주에 대한 압력이 커질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학과평가에 의한 학과 간 경쟁이 심해질 경우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열심히 연구과제를 수주한 교원에게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졌던 연구활동비를 기존 100%에서 40%로 줄이는 것으로 개정되는 교육연구활동지원비 방침은 연구비 수주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도 각 교수들이 더욱 외부연구과제수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독려와 사기 진작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 개인행정연구원에 대한 지원 정책 변경에 대해 아직 각 교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입생들을 대상으로한 Design Thinking / Human-Centered Design 등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 개설을 고려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좁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넓게는 세계 곳곳에서 급변하는 사회와 AI/ML 등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미래의 리더이자 창의적인 문제 해결자, 중재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느 종합대학에서 열리는 만큼의 풍부한 교양과목은 개설하기 어렵더라도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인간중심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길러줄 최소한의 수업은 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로 미국의 주요대학들이 STEM 중심교육에서 Art를 더한 STEAM 교육과정으로 커리큘럼을 일부 수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학부 신입생들이 학교에 더 큰 애착을 갖고, 대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감 부스트업 프로그램과 소소하고 더 다양한 학교브랜드상품 제작 및 배포/판매를 고려해주시고. 지난 1년간 짧게 만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겪어보지 않은 영어수업, 성적장학금을 유지하기 위한 맹렬한 2전공 수업과제, 미래 대학원 진학을 위한 랩 활동참가 및 연구보조 등으로 대체로 지쳐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경쟁심을 완화하고, 연구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본인의 정신건강을 잘 추스르고, 지속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학생들 개인이 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을 학교측의 배려와 노력을 통해 해결해 준다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 큰 애착을 느끼게 됨은 물론, '우수한' 입학생들이 '탁월한' 졸업생으로 성장하여,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자세를 가지고 자대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글쓰기 관련: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교에서도 글쓰기 관련해서 안을 마련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전처럼 안을 다 만들고 탑다운으로 전달, 시행하라고 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됨. 물론 이번 지도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으나, 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 적절한 시점에 기초과정부 교원들이나 글쓰기 교육에 관심 있는 공대 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음.
- '교육' 관련 TFT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초과정부의 목소리가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음.
- 학부장 학장에게 권한을 더 준다면 이는 각 학부 대학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리더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각 조직에서 먼저 장단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추후 학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중간평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물론 이 '평가'란 학부장, 학장의 인사에 대하여 교원들이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원들이 주체적으로 기획,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리더이어야 한다는 의미임. 단지 본부에서 임명해놓고 '연말에 평가할 테니 잘해보시오' 하는 것보다는 학부 내에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는 분을 리더로 모시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봄.
- 교수 강의 부담을 타 과기원 수준으로 낮춘다면, 기초과정부의 경우에도 12 학점/년으로 점진적으로 낮추어야 함. 대신 기초과정부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단지 학부생 교양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공헌하는 것도 포함.
- **학사조직개편안 관련**
중요한 학사조직개편안에, 전기전자컴퓨터공학이 소속되는 대학명칭 "정보바이오융합대학"에, 주된 학과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임. 지금이라도 소속 평교수들의 의견 조율을 거쳐서 최종 대학명을 정하기를 희망함.
- **학교 재정 관련**
단기간 학교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로, 교수님들이 창업한 창업기업의 유니스트 지분(5%)를 투자회사에 파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유니스트가 구주(old common stock)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있는 창업기업의 유니스트 구주 지분을 사고자 하는

투자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음.

- **인력 운용 계획 중 개인행정원 관련**

(1) 기존 몇몇의 교수님들이 연구과제로 계약한 행정원을, 학교의 무기계약직 연구지원 인력을 파견으로 대체하는 방법의 경우, 서비스의 질이 우려됨. 즉 교수님들 별로 업무의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이 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반드시 교수님들의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어떤 업무 scope 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고, 그 업무범위를 명문화해야 함.

(2) 기존 무기계약직을 교수 연구비 관리 업무로 할 경우, 기존의 본부 연구지원의 업무 이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교육연구혁신지원 제도 관련**

(1) 유형 II-2 (정액 200만원)도 결국 간접비에서 나오는 돈이 아닌지?

(2) 제도 개편의 내용이 기존의 지원방식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현재 발표와 발표자료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움. **학부별 다시 자세한 설명 (문서 혹은 발표)을 통하여 내용이해가 필요하고, 피드백을 받은 후, 시행을 해야 할 것임.**

(3) 새로운 교육연구혁신지원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학과장 중심제 관련**

(1) 학과장 중심 개편안에서, 승진/영년직 심사에 학과의 권한과 학과장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2) 재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학과장 중심의 개편은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도 있음. 대학이 회사와 같은 실적 중심으로 학과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평교수가 학과장의 눈치를 보면서 연구/서비스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음. 예를 들어, **평교수가 매년 혹은 격년마다 학과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을 제안함.**

- **연구비를 통한 무기계약직 행정인력 고용**

- 만일 무기계약직 행정인력으로 변경을 막기위해서 취하는 조치라면 개인 행정원이 2 년이 되기 전에 3개월 휴직하고 다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했으면 합니다. 개인 행정원 책임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무기계약직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교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교수 개인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함. 본부 차원에서 무기계약직 행정원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든 과기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수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개인 행정원을 고용하는 것인데, 본부 직원에게서 기대할 수 없음 (순환보직으로 옮겨갈 경우 연속성도 떨어짐).

● 교원인사 관련

- 교원 인사 평가제도 관련 교협과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지 않고, 본부에서 일방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이전 정권과 다를 것이 없음. 안을 만들어 놓고 교수 의견을 받더라도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또 다시 요식행위로 되지 말라는 법 없음.

- 총장님께서 영년직 심사에서 추천서를 더 받으시겠다는데, 그것이 공정한 교원평가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 (그냥 카이스트 시스템 따라하는 것 밖으로 보이지 않음). 어차피 교수가 컨택해서 잘 써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추천인으로 선택하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짐. 우리학교 인사시스템의 문제는 추천서가 아니라, 학기마다 멋대로 바뀌는 기준이 가장 큰 문제임.

- 연구비 수주 많이 하라고 하면서, 교원인사는 논문 위주로만 가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함. 연구비 수주만으로도 승진, 영년직 심사 통과할 수 있게 해야 함. 그리고 L1 논문만 주로 보는 것도 폐지해야 함. L1 논문 쓰기 위해 리소스를 그 쪽으로 투자하여, 연구비 수주 노력을 위한 여유가 없음. 또한 논문 실질적 편수도 줄어 들어 학생들이 많은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하여 취업경쟁력도 떨어짐.

- 학과장, 학장의 권한이 얼마나 주어지나? 진정 자치권을 주려면, 본부 심사를 폐지하거나, 학과 평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함 (사법부의 3심제도와 비슷)

● 기타사항

- AI와 같은 특수대학원은 예산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폐지되고, 교수와 직원은 학과로 편입되는 것이 현실임 (카이스트도 EEWS, 나노 대학원 등은 결국 다 폐지됨). 특수대학원을 계속 유지할 방안은 있는지? 없으면 학과로 편입되는 교직원 인건비 예산 없다고 교수들에게 또 부담 주는건 아닌지?

- 특수대학원에 TO를 뺏기고, 학과 TO가 줄어든 상황인데, 관련 분야와 상관없는 학과가 왜 희생해야 되나? 대학원 유치와 교수 TO를 더 받아오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 기초과정부 모교수님께서 석좌교수의 논문게재 건수가 초빙교수의 논문게재 건수보다 적다며 지난 총장 때 훌륭한 석좌교수를 모신 것이 아니라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우선 숫자를 중요시하는 이공계 교수님이 아닌,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회에 대해

연구하시는 인사철 출신 교수님께서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과거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 졌던 논문 숫자 높음의 폐해의 깊이를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총장님은 석좌 교수님들을 더 이상 모실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아니라면서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석좌 교수님이나 초빙 교수님을 모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학교 모든 교수님들의 평가 및 테뉴어/승진 심사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전체 논문편수나 L1편수를 가지고 테뉴어/승진을 결정하는 건 지난 총장님 때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총장님께서도 이와 다른 교수평가/테뉴어/승진심사 및 대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새로운 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하루 속히 안을 내어놓고 교수협의회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학과/학부/단과대 개편 시 학과장 및 학장에게 교수 테뉴어/승진 심사에 대한 권한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결국 대학 인사위원회가 과거와 동일하게 운영된다면 새로운 시도가 별다른 의미가 없으리라는 우려가 먼저 듭니다. 부연하면 지금의 학부-대학으로 이루어지는 두 단계의 테뉴어/승진 심사제도가 올 9월부터는 학과-단과대-대학 심사라는 3단계로 바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심사기간의 확대와 같은 비효율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학과-단과대 심사는 무시되고 결국 대학 인사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 인건비 절감을 위해 초빙 교수 등 박사급 인력의 인건비는 초빙학과에서 부담한다고 인력운용계획에 명시되어있던데 이는 소급적용인지, 아니면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면 당장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행정 연구원 선정의 자율성 보장

- 무기 계약직의 행정 연구원 전환 효과 미비 및 행정 마비 우려

- 학과장/학장 선임의 공개적 논의 필요 (투표까지는 아니라도 후보추천을 통한 논의 필요)

- **간접비 집행 관련**

재 교수개인에게 지급된 간접비 전체가 학부장에게로 간다는 말씀인지요?

왜 이렇게 바꾸는 것인지? 학부장에게 학부 간접비 예산집행권을 주기 위한 것인지요?

(현재, 학부에 지급되고 있는 간접비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1. 해당 간접비의 사용이 학부장 개인이 단독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향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서, 학부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학부장의 역량에 따라 매우 다르게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행대로 각 교수의 연구비에서 나오는 간접비 예산은 각 교수가 사용처에 맞게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